

8월17일(월)/누가복음9:57-62

**제목: 미지근한 태도는 안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자기 부친의 장례식을 마친 뒤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59절) 예수님은 장례는 불신자 가족에게 맡기고 속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셨다.(60절) 너무 매정한 말씀이 아닌가? 사실 그 부친이 진짜 죽었다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 한가하게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없다. 또 무더운 이 지역에서 사람이 죽으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즉시 장례하는 것이 상례인데 나중에 장례를 치루고 난 후에 따르겠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며 핑계를 댄 것이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어떤 순간에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어떤 순간에는 가라앉는 사람이었다. 이럴까 저럴까 늘 갈등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바로 행동해야 한다.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하기 힘들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표어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친 장례는 다른 가족에게 맡기라는 말은 우유부단하고 미지근한 태도에서 나온 그의 거짓말을 지적한 것이지 부모에 대한 예(禮)를 저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다.

8월18일(화)/누가복음10:1-16

**제목: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설교 하는 자와 설교 듣는 청중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설교자가 “전대와 주머니와 신을 가지지 말라” (4절)는 말은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다. 설교자는 심방하는 집에 항상 복을 빌어주고(5절) 비싼 요리 보다 자기 앞에 놓인 대로 먹어야 하며(7-8절) 나은 숙소를 구하려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지 말라 하셨다.(7절) 또 설교자는 자신을 영접치 않는 가정 이 있으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가정을 저주하며 나와야 한다.(10-12) 이 부분은 다소 의외의 말씀이다. 한두 번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설교자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오히려 청중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장차 임할 심판의 책임은 그들 스스로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설교자의 신발의 먼지가 저주가 되어 훗날 유죄 선고의 자료로 그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내릴 심판의 강도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12절)

8월19일(수)/누가복음10:17-20

**제목: 초인종을 누르면 사단은 신음합니다.**

예수님의 70인 전도대가 성공적인 전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들이 전도할 때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고(17절) 그들이 전도임무를 수행할 때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예수님께서도 보셨다.(18절) 여기서 귀신의 세력을 이 땅에서 멸하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전도이다. 전도는 사단의 힘과 기세를 떨어뜨린다. 전도는 사단이 항복을 결심하게끔 만든다.(20절)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은 치명상을 입는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 한 사람이 전도되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20절) 전도는 사단의 숨통을 틀어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19절) 전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전도하는 자를 보고 겁먹고 치명상을 입는 사단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오늘 우리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지를 돌리고 누군가 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항복을 생각하다 땅에 떨어진다.

8월20일(목)/누가복음10:21-24

**제목: 순전한 마음이 위대하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교만한 자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이와 예수님에게만 드러난다.(21-22절) 하나님 나라의 계시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졌다.(24절)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학식있는 자의 마음 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전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사람은 영리해지는 것을 장려하지만 하나님은 순전해지는 것을 장려한다. 머리로만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그 영혼에 닿지 않고 이성의 통로로만 직행한다. 어떻게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접수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이성의 통로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통로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맑고 티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머문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난다. 성경에 나오는 ‘옥토’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리킨다. 여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난다.

8월21일(금)/누가복음10:25-37

### 제목: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돈을 뺏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그 사람 곁에 한 제사장이 다가왔으나 그는 그 죽어가는 자를 피해 버렸다.(31절)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율법상 부정하다 해서 그냥 피했을까?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도 역시 피해 버렸다.(32절) 레위인은 안전제일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을까?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였다. 청중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자 분명히 악당이 등장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지로 도움을 베풀었다.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여관주인에게 그 강도를 맡길 수 있었을 만큼 신용도 있는 자였다.(33-35절) 사마리아 사람은 신학적으로 유대인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학적으로는 온전치 못했으나 자비롭고 정직하고 신용 있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자비와 정직과 신용이 없는 봉사와 성경지식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